

숫자 17과 큰 물고기 153표적(요 21:11)의 의미

박호용*

1. 숫자 153에 대한 선행연구사와 그 문제점

본 논문은 성경에서 사용된 숫자 17과 그것의 구체적 사례인 큰 물고기 153표적(요 21:11)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의 큰 물고기 백천세 마리에 나오는 숫자 153이 무슨 의미인가를 놓고 교부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다. 먼저, 숫자 153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클링크(Klink III)는 이를 다섯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 사실적 묘사(Historical Description)²⁾, 자연적 상징(Natural Symbolism)³⁾, 성서적 상징(Biblical Symbolism)⁴⁾, 수학적 상징(Mathematical Symbolism)⁵⁾ 및

*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Edward W. Klink III, *Joh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Zondervan, 2016), 901-903.
- 2) 이 해석은 숫자 153을 포획한 물고기의 정확한 숫자를 말한다 해석이다. 따라서 상징적 의미로의 해석을 부정한다.
- 3) 이 해석은 숫자 153을 독자들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주는 데 있다는 해석이다. 가령, 제롬(Jerome)은 에스겔 47장 6-12절을 주석하면서 숫자 153은 헬라(라틴)의 생물학자들이 물고기를 153 종류로 분류했다는 주장을 한다.
- 4) 이 해석은 숫자 153을 성서로부터 이미 확립된 상징 숫자라고 해석한다. 가령, 그 숫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루는 본문(왕상 5:15-16)에 나오는 153,300 노동자를 암시한다고 보거나 홍수이야기(창 6-9장)에 나오는 홍수의 전체 날수(153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 5) 이 해석은 수학적 접근을 사용하여 신학적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해석이다. 오리겐(Origen)은 그 숫자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153=(50 \times 3)+3$ 을 말하였

게마트리아(Gematria)⁶⁾가 그것이다. 또한 마루치(Marucci)는 4가지 모델을 제시한다.⁷⁾ 역사적 모델(물고기의 정확한 숫자), 어류학적 모델(153 종류의 물고기라는 제롬의 주장), 숫자적 상징 모델(1에서 17까지의 자연수의 총합이라는 어거스틴의 주장), 게마트리아 모델(그 숫자는 겔 47:10에서 언급하는 ‘에네글라임’과 같은 일련의 문자)이 그것이다.

최근에 보켄(Bauckham)은 게마트리아 방식을 사용하여 숫자 153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요한복음의 기록목적을 말하는 20장 30-31절의 핵심어 4개, 곧 표적(17회), 믿음(98회), 그리스도(19회), 생명(36회) 용어를 가지고, 첫 단어(표적)의 숫자 17은 삼각수이며, 뒤의 세 용어의 합이 153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 독자들에게 게마트리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느낄지 모르나 고대 세계에서 게마트리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통찰력 있는 주장을 하였다.⁸⁾

다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박수암 교수는 요한복음이 묵시문서가 아닌 까닭에 숫자 153을 게마트리아

다. 또한 어거스틴(Augustine)은 153 숫자는 1부터 17까지의 자연수의 총합(삼각수, triangular number)으로 보면서 십계명(10)과 성령의 일곱 선물(7)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6) 이 해석은 각 숫자가 지니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게마트리아(gematria)’는 ‘수의 상징학’으로 수치학(數值學) 또는 수비학(數秘學)으로 번역된다. 필자는 게마트리아가 지닌 숨겨진 상징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숫자상징코드’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숫자 153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Rudolf Bultmann, *The Gospel of John* (Oregon: Wipf & Stock, 1971), 709. n. 2; 게마트리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조철수, 『유대교와 예수』 (서울: 길, 2002), 258-344; 요한복음에 나타난 ‘숫자상징코드’에 대해서는 박호용, 『요한복음주석1(해석편)』 (서울: 예사빠전, 2015), 344-353을 참조하라.

7) Corrado Marucci, “Il significato del numero 153 in Gv 21,11,” *RivB* 52(2004), 403-440. 더 자세한 설명은 Johannes Beutler, *A Commentary o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13), 531-534; Craig S. Keene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III*(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2003); 『요한복음 III』, 이옥용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3162-3167을 참조하라.

8) Richard Bauckham, “The 153 Fish and the Unity of the Four Gospel,” 283-284, Edward W. Klink III, *John*, 902에서 재인용.

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153을 $(10+7) \times 3 \times 3$ 으로 보고, 10은 세상 만수, 7은 종교적인 만수로 보아, 세계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의 전부를 표시한다고 주장하였다.⁹⁾

김동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왜 153마리인가? 단순히 많은 물고기라고만 하면 될 것을, 아니면 대략 100여 마라나 된다고 해도 될 것을 왜 구체적으로 153마리라고 했을까?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난제를 풀어 보려고 시도했지만 모든 제안들은 그야말로 제안일 뿐 그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수가 바닷가에 나타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건이며 이것에 대한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¹⁰⁾

최홍진 교수는 숫자 153에 대한 논란은 153이 실제적인 고기의 숫자인지, 아니면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이해한 해석의 예를 살펴보면, 이 숫자가 삼위일체의 표적이라고도 하고, 바다에 있는 특별한 고기 종류라고도 한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 물고기의 수로 생각된다. 곧 많은 물고기가 정확히 실제로 잡혔음을 증거한다. 또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통으로 짠 속옷처럼 연합과 일치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주장하였다.¹¹⁾

가톨릭 신학자인 이영헌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된 듯하다(계 13:18 참조). 분명한 것은 큰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찼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 숫자는 기적사화 안에 보도되어 고기잡이 기적의 놀랍고 위대함을 시사해 준다는 점이다. “큰 물고기들”은 사도들의 인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여러 민족의 모든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큰 물고기 153 숫자는

9) 박수암,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422-423.

10) 김동수, 『요한신학 렌즈로 본 요한복음』 (서울: 솔로몬, 2006), 255.

11) 최홍진, 『요한복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292-293.

충만함과 보편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

개신교 신학자 가운데 숫자 153에 대해 가장 심도있게 다룬 학자로는 조철수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153표적에 숫자 17이 숨겨져 있으며, 이러한 숫자의 은유적 표현을 찾아내서 당대의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피력하였다. 베드로의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가 모두 153마리였다는데, 그 숫자가 우연히 생긴 수는 아닐 법하다. [잡은 물고기를 하나하나 세어보았더니 153마리였다고 전하지 않는다. “그물을 물으로 끌어올리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가득하였다(요 21:11)는 문구가 말해준다. 그물 속에 들어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헤아려서 153마리라는 수효가 나왔겠느냐는 질문이다.]

이 일화는 ‘아가다(짧은 이야기)’의 범주에 속하는 이야기다. 일반적인 아가다의 성격상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이야기하지 구태여 153이라고 그 숫자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그 숫자를 알려주는 것은 그 숫자에 담겨 있는 상징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흔히 153은 1에서 17까지 합한 수로 사도들에 의해 초대교회 일원이 된 신앙인들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17의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1에서 17까지 더한 수로 보이지 않는다.

어느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흔히 그 단락에서 그 숫자를 해결해주는 단어나 문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청중이 숫자의 상징성을 파악하고 전개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큰 물고기 153마리의 경우 그 삼마리는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14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구절은 153의 수에 셋이 상관됨을 일러준다. 또 하나의 숫자는 직접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이라는 말 속에 담긴 사흘(3)이라는 숫자이다. 보통 상징하는 숫자가 크면 그 수를

12) 이영현, 『요한복음서』 (경북: 분도출판사, 1999), 382-383.

나누어서 해답을 찾는다. 153을 3과 3으로 나눈 숫자가 그것이다(또한 153을 3으로 나누는 이유는 나눌 수 있는 수가 3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큰 물고기 153마리 이야기는 17의 상징성에서 그 진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조철수 교수는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열일곱째 날(창 7:11; 8:4)을 예로 든다. 노아가 그의 식구들과 온갖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기 시작한 날이 둘째 달의 열일곱째 날이며, 그들이 탄 방주가 새로운 땅에 내린 날짜가 바로 일곱째 달의 열일곱째 날이다. 노아의 식구(공동체)가 새로운 삶을 바라며 새 공동체 의식에 참여하는 출발 시기가 열일곱째 날이며, 장기간의 고난 끝에 새로운 땅에 도착하여 새 생활을 시작할 그날이 또한 열일곱째 날이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17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과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새 삶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숫자다. 즉 17은 새 언약의 시대 서막에 등장하는 구원의 배를 은유하는 숫자라고 주장하였다.¹³⁾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 153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의 문제점을 크게 본문(text)과 상황(context)이라는 두 측면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측면에서, 그 숫자를 말하는 본문(21장) 전체, 나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¹⁴⁾이 그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가를 다루기보다는 본문 전후의 몇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아니면 본문 밖에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단편적인 이해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둘째, 상황의 측면에서,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이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숫자의 의미를 개진함으로써 요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단순한 예수의 전기가 아닌, 묵시문학 장르에 속한다는 사실을 깊이 천착하지 못했다.¹⁵⁾ 즉 요한의 숫자

13) 조철수, 『예수평전』 (서울: 김영사, 2010), 743-747.

14) 요한복음의 저자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요한복음주석1(해석편)』, 163-188을 참조하라. 본 논문에서는 ‘요한’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5) Ibid., 327-335을 참조하라.

사용방식¹⁶⁾은 묵시문학적 글쓰기의 특징 중의 하나인 ‘게마트리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요한공동체의 묵시문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큰 물고기 153표적’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숫자 153을 요한복음 본문 전체 그리고 묵시문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게마트리아로 해석할 때, 숫자 153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제자도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숫자 153을 심도있게 다룬 조철수 교수의 문제점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17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가깝고도 단순한 해석인 ‘간결성의 법칙(Law of Parsimony)¹⁷⁾’, 즉 이 숫자와 관련된 가장 가까이 있는 본문(21장), 또는 보다 넓게는 요한복음 안에 깊이 천착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창세기, 그것도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노아홍수 이야기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근본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마 4:19)로서의 제자도, 즉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으며(마 16:24), 이것을 153표적을 통해 다시 상기시켜주고자 했다는 것을 그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요한의 묵시문학적 상황과 숫자 사용방식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을 전후해서 유대교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출교(9:22; 12:42; 16:2)를 당하고,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상황 속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킬 것을 호소하고자 쓰인 문서이다. 종교적 박해상황을

16) 요한복음에 나타난 숫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Gerald L. Borchert, “Excursus 6: Numbers”, *John 1-11*, Vol.25A (Nashville: Publishing Group, 1996), 254-256을 참조하라.

17) ‘간결성의 법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Zondervan, 2001); 『창세기 주석』, 김정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69.

‘묵시문학적 상황’이라고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쓰인 문서를 전문용어로 ‘묵시문학(묵시문서)’이라고 한다.¹⁸⁾ 요한복음은 유대교와 로마제국이라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강력한 두 세력의 협공을 받으며, 박해와 순교라는 생존의 위기상황 속에서 나온 묵시문학 장르에 속하는 책이다.¹⁹⁾

묵시문학적 위기상황에서 쓰인 요한복음은 전반부(1-11장)에서 모세(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특히 로그스찬가[1:1-18]에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12-21장)에서 “이 세상 임금”(12:31; 14:30; 16:11)인 가이사(로마제국)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특히 디베랴 바닷가의 부활하신 예수의 153표적[21:1-14]에서)²⁰⁾를 보여주고 있다. 장르상 묵시문학에 속하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서인 요한복음은 여러 ‘묵시문학적 특징들’²¹⁾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본 논문과 관련하여 암호와 같은 비밀언어(암호상징)로서의 게마트리아를 살펴보자.²²⁾

- 18) ‘묵시문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왕대일, 『묵시문학연구: 구약성서 묵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1-80을 참조하라.
- 19)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요한복음주석1(해석편)』, 39-50, 312-344을 참조하라.
- 20)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요한복음주석2(주석편)』, 496-498, 528-532를 참조하라. 21장에서 ‘큰 물고기 153표적’은 여덟 번째 표적으로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21장에는 예배의 대상인 ‘주(*κύριος*)’가 8회 나타난다(7[2회], 11,15,16,17,20,21). 이는 가이사 황제가 예배의 대상인 주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께서 ‘새로운 주’,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 21) 묵시문학의 특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들면 가명성, 암호상징(특히 숫자) 사용, 역사적 이원론(환란을 당하는 현재의 세상과 다가올 새 세상)을 들 수 있다. 이를 요한복음에 적용하면 이렇다. 문서가 검열을 당하는 묵시문학적 박해상황 속에서 요한은 필화를 모면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라는 실명을 사용하는 대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13:23)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공관복음에서 사용된 메시아적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뒤나미스)’ 어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사건 배후의 그 무엇을 암시(*sign*)하는 ‘표적(세메이온)’ 어휘(2:11)를 사용한 점,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환란을 당하는 현재의 세상과 앞으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는 점(16:33). 요한복음의 묵시문학적 상황과 그 문학적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요한복음주석1(해석편)』, 39-51, 312-323을 참조하라.
- 22)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것을 숫자로 풀리는 알레고리칼(풍유) 해석이나 인간적 이익을 위해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 144,000(계 6:4)을 자기 교회에 들어온 자들만 구원을 받는 숫자로 오용(남용)하여

유대인들은 각각의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²³⁾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숫자(또는 횟수)를 사용할 때 객관적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게마트리아(숫자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²⁴⁾ 요한은 ‘대략’을 말하는 숫자, 예를 들어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2:6), 오천 명쯤(6:10), 십 여리쯤(6:19), 백 리트라쯤(19:39), 한 오십 칸쯤(21:8)에서 사용된 숫자와는 달리 구체적인 숫자, 즉 돌항아리 여섯(2:6), 여섯 남편(4:18), 가룟 유다(6회),²⁵⁾ 일곱 시(4:52), 38년 된 병자(5:5)²⁶⁾, 열두 바구니(6:13)²⁷⁾, 여드레(20:26)²⁸⁾ 등등은 게마트리아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큰 물고기 153마리(요 21:11) 표적이 그러하다.

이 숫자는 실제적인 물고기의 숫자(어획의 풍성함 또는 예수의 큰 기적)로 볼 수도 있다.²⁹⁾ 그러나 필자는 이 숫자가 묵시문학적 박해상황에서

이 숫자가 거의 잦으니 속히 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강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표적인 알레고리칼 해석은 어거스틴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에 대한 해석을 들 수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요한복음주석1(해석편)』, 346의 각주 720을 참조하라.

- 23) 가령, 1은 하나님, 절대, 2는 반복, 강조, 3은 하늘(하나님)의 숫자, 4는 땅(세상, 동서남북), 5는 모세오경(유대교),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 모자라는 불완전(부족)의 의미, 사탄과 죽음의 숫자, 7은 완전수(3+4), 천지의 숫자, 부활(생명)의 숫자, 8(7+1)은 새로운 주기(시작)의 의미, 9는 10에서 1이 모자란 불완전한 숫자, 10(5+5 또는 1+2+3+4)은 양손의 손가락의 합수로, 또 하나의 완전수이다.
- 24) 가령, 여섯 돌항아리(2:6), 여섯 남편(4:18), 제 칠시(4:52), 38년 된 병자(5:5), 큰 물고기 153마리(21:11), 일곱 표적(2-11장), 일곱 ‘에고 에이미’ 말씀(6:35; 8:12; 10:7,11; 11:25; 14:6; 15:5) 등.
- 25) 요 7:7; 12:4; 13:2; 18:2,3,5. ‘가룟 유다’의 6회 사용은 그가 사탄에 사로잡힌 자임을 암시한다.
- 26) 숫자 38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38년 동안의 방황을 말하는 숫자(신 2:14)이며, 요한복음에 서는 구원의 의미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는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27) 숫자 12는 3×4인데, 구약의 12지파처럼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한다.
- 28)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로써, 부활 후 제8일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부활이 기독교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을 상징한다.
- 29) 크루즈는 이 숫자는 상징적 의미보다는 많은 물고기를 포획했다는 기적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한공동체 성도들 간에 그들만의 암호비밀처럼 사용된 ‘게마트리아(숫자상 정코드)’입이 분명하다고 본다. 즉 ‘큰 물고기 153마리’에 나타난 숫자 153에는 요한이 게마트리아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한다. 숫자 153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숫자로서 ‘게마트리아의 압권’이라고 생각한다.³⁰⁾ 그렇다면 ‘큰 물고기 153마리’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숫자 153과 관련된 숫자 17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타난 숫자 17과 십자가의 상응성

3.1. 숫자 17 고찰

아라비아 숫자는 1에서 10(또는 0에서 9)까지의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으로 모든 숫자를 표현한다. 성경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숫자 7과 숫자 10을 완전수로 좋아한다. 숫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특별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데 근거한다.³¹⁾ 이러한 대자연의 법칙은 성경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은 ‘문자 언어’만이

것으로 보고 있다. Colin G. Kruse, *Joh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4 (Nottingham: Inter Varsity Press, 2003), 384.

30) 숫자 153이 게마트리아가 아니라면 요한은 대략의 숫자를 말할 때 쓰는 그냥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또는 ‘약 150여 마리’ 등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또한 팔딱팔딱 뛰는 생생한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한 마리씩 세다가 한 마리를 잘못 세어 152마리나 154마리라고 표현할 경우 이런 숫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와는 달리 요한이 구체적인 숫자를 기술할 경우에는 게마트리아입이 분명하다.

31) 정사각형의 면적을 100이라 한다면 그에 내접하는 원의 면적은 약 78이 되고 나머지는 22가 된다. 또 공기의 성분 중 질소 대 산소의 비율도 78:22, 사람의 신체 중 수분 대 기타 물질의 비율도 78:22, 지구의 바다 대 대륙의 비율도 78:22의 비율로 되어 있다. ‘78:22의 법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이희영, 『탈무드 황금을 방범: 유대 5000년 불굴의 방패』 (서울: 동서문화사, 2001),

아니라 그 속에는 ‘숫자 언어’ 또는 ‘그림 언어’³²⁾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자신이 들려주고자 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신다. 특히 종교적 박해상황 아래에서 숫자를 암호상징으로 많이 사용하신다. 그 까닭은 문서검열에 따른 필화를 면하고, 공동체 신자들 상호 간에 결속과 신앙적 격려를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153표적과 관련된 숫자 17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³³⁾ 숫자 17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감추어 둔 완전수이다. 숫자 153은 17이라는 숫자에 기초하고 있는데, 숫자 17을 선택한 이유는 10과 7을 더한 1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 의미를 산출하기 때문이다.³⁴⁾ 숫자 17은 완성과 완전을 뜻하는 두 완전수 10과 7의 합수이다.³⁵⁾ 두 완전수인 이 두 숫자를 풀어보면 이렇다.

숫자 7은 3+4 또는 5+2이고, 숫자 10은 5+5 또는 5×2이다. 각 숫자는 그 수의 가치(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령, 숫자 3은 하늘 또는 하나님의 수이고 4은 땅, 인간의 수이다. 즉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성부, 상자, 성령)’의 숫자이고, 숫자 4는 ‘사방(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땅의 숫자이다. 숫자 7을 완전수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천지(天地), 즉 하늘과 땅을 합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게마트리아’에서 더하기(+)와 곱하기(×)는 상호 호환된다는 점이다. 가령 3+4는 3×4와 상호 호환되는 숫자로 7도 되고 12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 12도 숫자 7과 더불어 완전수의 의미를 띤다.³⁶⁾ 숫자 10은 각각 5개의 손가락을 가진 두 손의 합(5+5)으로, 완전수

149-150.

32)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이나 메노라(등잔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나 물고기(익투스)가 이에 해당함.

33) 어거스틴은 숫자 17(17=10+7)에서 숫자 10은 십계명(출 20장)과 관련된 숫자, 즉 구약(유대인)을 대표하는 율법의 숫자이고, 숫자 7은 성령(계 1:4)과 관련된 숫자, 즉 신약(이방인)을 대표하는 은혜의 숫자라고 보았다. 숫자 17은 완전수인 두 숫자(10과 7)의 합수로써 가장 완전한 숫자이다.

34) Gerald L. Borchert, *John 12-21*, Vol.25B (Nashville: Publishing Group, 2002), 330.

35) Charles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London: SPCK, 1960), 484.

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십계명(출 20장)이나 10가지 재앙(출 5-11장) 등이 좋은 예이다.

더하기(+)와 곱하기(x)가 상호 호환되는 ‘게마트리아’에서 숫자 7(5+2)과 숫자 10(5×2)은 똑같이 7도 되고, 10도 된다는 점에서 둘 다 완전수이다.³⁷⁾ 가령, 오병이어(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기적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두 숫자(5+2 또는 5×2)를 통해 놀라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바로 그 두 완전수 7과 10의 합수가 17(7과 10의 곱수는 70)이고, 그런 의미에서 숫자 17은 가장 완전한 숫자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요한이 숫자 17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숫자 17의 좋은 실례가 되는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 이를 고찰해 보자.

3.2. 창세기에 나타난 숫자 17 고찰

가장 완전한 숫자 17은 두 개의 완전수인 10과 7의 합수이다. 완전수에 해당하는 숫자 7³⁸⁾과 숫자 10³⁹⁾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타날 뿐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띤다. 먼저, 숫자 10을 살펴보자. 율법의 숫자 10은

36)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에 해당한다.

37) 게마트리아에서 더하기(+)와 곱하기(x)는 상호 호환이 된다는 점에서 17(10+7)과 70(10×7)은 같은 숫자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38) 숫자 7이 갖는 상징성이 부각되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두칠성의 일곱과 관련되어 있다. 유대교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메노라(일곱 등잔이 달린 등잔대)는 주후 3-4세기에 세워진 유대교 회당 건물터에서 볼 수 있다. 일곱의 상징성은 복음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일곱 개의 문장으로 된 주기도문, 일곱 표징, 일곱 개의 빵과 일곱 비구니, 바리새인들에게 일곱 차례 불행의 선언하는 예수의 언명 등 매우 많다). 더 자세한 설명은 조철수, 『예수평전』 (서울: 김영사, 2010), 793을 참조하라.

39) 유대교 카발라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10개의 ‘쓰피르트(頂點)’에서 발산하는 과정에서 찾았다. 조철수, 『유대교와 예수』, 114-119. 그 외에도 숫자 10은 10재앙(출 5-12장), 십계명(출 20장, 신 5장), 지성소의 크기 10구빗, 성전의 물두명, 떡상, 촛대 10개씩, 십일조, 대속죄일(7월 10일), 유월절 준비일(1월 10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10회, 출 39:1,5,7,21,26,29,31,32,42,43 등)

구약(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이다. 특히 창세기⁴⁰⁾는 숫자 10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족보)⁴¹⁾로 되어 있다. 또한 홍수 이전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 홍수 이후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의인 십 명(창 18:32), 십분의 일을 드립(창 28:22), 품삯을 열 번이나 번개(창 31:41), 첫 번째 창조기사(창 1:1-2:3)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창 1:3,6,9,11,14,20,24,26,28,29)와 ‘종류대로’(창 1:11,12[2회],21[2회],24[2회],25[3회]) 등등.

다음으로, 숫자 7을 살펴보자. 창세기 첫 절(1:1)은 완전수인 ‘일곱 단 어⁴²⁾’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암시한다.⁴³⁾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 7회(1:4,10,12,18,21,25,31) 사용되고 있음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첫 번째 창조기사(창 1:1-2:3)는 숫자 7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⁴⁴⁾ 그 외에도 아담의 7대 손 에녹(창 5:19), 칠 일 후의 홍수 내림(창 7:10), ‘노아 언약’ 용어 7회(9:9,11,12,13,15,16,17),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기 위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창 21:27-28) 등등. 그 외에도 창세기에는 게마트리아의 특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⁴⁵⁾

40)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태초에”(요 1:1)를 비롯하여 로그스찬가(요 1:1-18)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일곱 표적이 7일간의 창조와 상응한다는 사실 등을 통해 쉽게 엿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요한복음주석1(해석편)』, 353-362; 박호용, 『요한복음주석2(주석편)』, 503-519를 참조하라.

41) 10개의 톨레도트(2:4-4:26; 5:1-6:8; 6:9-9:29; 10:1-11:9; 11:10-26; 11:27-25:11; 25:12-18; 25:19-35:29; 36:1-37:1; 37:2-50:26).

42)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베레쉬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웨에트 하이레츠) 공교롭게도 중국어 성경도 창 1:1을 일곱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起初神創造天地). 하늘(天)의 숫자(3)와 땅(地)의 숫자(4)를 합한 수가 7인데, 천지의 숫자 7은 ‘전체’와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43) 7일 간의 천지창조가 살름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형상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박호용, 『창세기주석』 (서울: 예사빠전, 2015), 40-42, 48-50를 참조하라.

44) 첫 창조기사(창 1:1-2:3)는 7의 배수로 가득 차 있다. 1:2은 14(7×2)단어, 2:1-3은 35(7×5)단어, 1:1-2:3에서 엘로힘(35회), 땅(21회), 하늘(21회), 그대로 되니라(7회), 창조하다(bara’ 동사 7회), 7일 천지창조, ‘거룩하게’로 구별된 제7일 안식일의 강조(2:3) 등등.

한편, 숫자 17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한 기수(서수)로나 또는 횡수로나 잘 나타나지 않는 숫자이다.⁴⁶⁾ 창세기에서 숫자 17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아 홍수와 관련하여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이렛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고(창 7:11), ‘일곱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창 8:4)는 대목이다.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17세였다(창 37:2). 그리고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다(창 47:9,28 참조). 창세기에 숫자 17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은 이 네 구절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족장사(창 12-50장)에 나타난 족장들의 수명을 고찰해 보면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세 족장(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향년이 모두 숫자 17과 관련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175세(창 25:7), 이삭은 180세(창 35:28), 야곱은 147세(창 47:28), 요셉은 110세(창 50:26)를 살았다.⁴⁷⁾ 족장들의 수명에 나타난 인수분해는 뚜렷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begin{aligned} \text{아브라함: } 175 &= 7 \times 5 \times 5 / \text{이삭: } 180 = 5 \times 6 \times 6 / \\ \text{야곱: } 147 &= 3 \times 7 \times 7 / \text{요셉: } 110 = 1 \times (5^2 + 6^2 + 7^2) \end{aligned}$$

45) 가령,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데리고 나간 병사가 318명이라고 한다(창 14:14). 여기서 숫자 318은 실제적인 병사의 숫자일 수도 있으나 이 숫자는 게마트리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양자 이름이 ‘엘리에셀(עֲלִיעֶזֶר)’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뜻이다. 엘리에셀의 여섯 알파벳 숫자의 합이 318(318=1+30+10+70+7+200)이다. 따라서 숫자 318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조카 롯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다는 신앙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다.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1)*,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406-407.

46) 구약에 나타난 숫자 17의 기수와 서수를 살펴보면, 기수(基数): 창 37:2; 47:28; 왕상 14:21; 왕하 13:1; 대상 7:11; 대하 12:13; 스 2:39; 느 7:42; 렘 32:9. 서수(序數): 창 7:11; 8:4; 왕상 22:51; 왕하 24:15; 25:24.

47) 여호수아의 향년도 요셉과 같다(수 24:29).

요셉의 110년은 연속적인 정방형 숫자의 총합($110=5^2+6^2+7^2$)이다. 창세기의 첫 사람 아담은 930년(30^2+30)이고,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인 요셉은 110년(10^2+10)이다. 요셉에게는 세 사람의 족장과 관련하여 7-5-3-1의 패턴(두 숫자씩 줄어든다)과 ($5^2+6^2+7^2$)의 패턴(한 숫자씩 늘어난다)이 나타난다.⁴⁸⁾ 이 같은 일정한 패턴을 통해 제4의 족장인 요셉은 족장 내러티브의 결론을 가져온 인물로서, 그의 조상들의 족장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족장의 성취로서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⁴⁹⁾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마트리아에서 곱하기와 더하기는 상호호환이 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숫자($7+5+5$), 이삭의 숫자($5+6+6$), 야곱의 숫자($3+7+7$)은 모두 17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⁵⁰⁾ 숫자 17은 이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창 37:2)와 야곱이 애굽에서 체류한 세월(창 47:9,28 참조)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세 족장의 합수가 51($17+17+17$)이라는 사실이다. 숫자 51은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17)와 부활(3)의 곱수인 51의 마방진(魔方陣)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숫자이다.

3.3. 숫자 17과 십자가의 상응성

예수 그리스도는 죄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48) 이를 두고 사르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인수분해적 패턴을 통하여 족장들의 연대기는 심오한 성경적 확신을 표현하는 수사학적 장치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스라엘을 형성하던 시대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에 따른 질서잡힌 일련의 사건들이었다는 것이다.” Nahum M. Sarna,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0), 324.

49)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2)*,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709-710.

50)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신앙의 두 인물인 모세와 다윗의 향년도 숫자 17과 관련되어 있다. 모세 120세= $(3 \times 4) \times 10$; 다윗 70세= $(3+4) \times 10$.

감추어 두신 가장 큰 비밀이다(롬 16:25-27; 엡 3:3,9; 골 1:26-27; 2:2 등). 그 중에서 십자기는 가장 큰 비밀에 속한다(고전 1:18-25; 2:6-12; 갈 2:16-21; 6:11-14 등).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했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요 19:30)는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셨다.⁵¹⁾ 여기서 십자가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다.

십자기는 세로와 가로라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 세로축을 구약(유대인, 율법)으로, 가로축을 신약(이방인, 은혜)으로 비유하면,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온 인류(만민),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며, 이는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성령)을 다 성취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세로축은 숫자 10(구약, 유대인, 율법의 숫자)이며, 십자가의 가로축은 숫자 7(신약, 이방인, 은혜의 숫자)로써, 이 두 완전수의 합수는 17이 된다. 즉 십자가의 숫자는 가장 완전한 숫자인 17과 상응하며, 숫자 17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숫자 17은 아래에서 논할 숫자 153표적의 의미를 밝히는 열쇠가 된다.

3.4. 요한복음에 나타난 숫자 17 고찰

숫자(횟수) 17은 의도를 갖고 쓰지 않는 한 쉽게 나타날 수 없는 숫자(횟수)이다. 가령, 수많은 게마트리아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인 계시록은 숫자 10과 7은 무수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⁵²⁾ 그 두 숫자의 합수인 17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17과 관련된 숫자(횟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에서

51)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왕의 복음』(서울: 쿤란출판사, 2018), 235-290을 참조하라.

52) 계시록에서 숫자 7은 60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숫자 10과 관련해서는 10(2:10; 12:3; 13:1; 17:3,12,16), 1,000년(10×10×10, 20:2,4,7), 1,600스다디온(4×4×100, 14:20), 12,000(12×1000, 21:16), 144,000(12×12×1000, 7:4; 14:1) 등등. 박호용, 『성경개관2(신약편)』(서울: 예사빠진, 2015), 365-367.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요한의 깊은 신학적 의도가 깔려 있음이 자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숫자(횟수) 17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결정적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처음’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전통이 있다. 모세오경의 책 이름은 각 책의 첫 절(또는 첫 단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 좋은 실례이다.⁵³⁾ 이 같은 전통은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⁵⁴⁾ 요한복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요한복음을 여는 첫 절(“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태초에’로 번역된 ‘엔 아르케(Ἐν ἀρχῇ)’는 창세기의 첫 단어와 같다. 이는 창세기와 의 상응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가 세 번 나타난다. 횟수 3은 ‘더 이상은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말씀의 화육이신 예수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암시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요한복음의 첫 절(1:1)이 17개⁵⁵⁾의 헬라이어 단어로

53) 창세기(“태초에”라는 뜻의 ‘베레쉬트’, 출애굽기(“이름들”이라는 뜻의 ‘쉐모트), 레위기(“불렀다”라는 뜻의 ‘와이크라), 민수기(“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바르), 신명기(“말씀들”이라는 뜻의 ‘핫데바랴). 아울러 공관복음서의 첫 절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54)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첫 절(“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은 8단어로 되어 있는데, 숫자 8이 갖는 숫자상징적 의미(새로운 시작의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쁜 소식(복음)이며, 이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작’을 의미하는 ‘아르케(ΑΡΧΗ)’로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마가복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첫 절(“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한 8단어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책’을 의미하는 ‘비블로스(BIBΛΟΣ)’로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약성경의 성취’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55) 요 1:1(17단어,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테오스(θεός)’에 관사 호(ὁ)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의 무관사에 대해 로고스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 로고스가 유일한 존재는 아님(아버지의 신성과는 구별된 단순히 ‘신적인’이라는 더 약한 의미)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있다. Charles K. Barrett, 위의 책, 130. 그러나 요 1:1을

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한복음 전체가 교차대구 구조(chiasm)⁵⁶⁾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상응하는 21장 1절 또한 17개⁵⁷⁾의 헬라이어 단어로 되어 있다.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1장과 21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2-20장)에서는 첫 절이 17단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7개의 헬라이어 단어로 되어 있는 1장 1절(21장 1절)에는 요한의 깊은 신학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이미 언급한 십자가의 숫자가 17이라고 할 때 1장 1절의 17개의 헬라이어 단어는 말씀(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게다가 1장에는 17개의 기독교적 칭호⁵⁸⁾가 나타난다. 이는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20:30-31)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메시아)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1장에서 예수는 새 야곱(새 이스라엘)으로 나타나는데(51절), 족장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보냈으며, 그의 나이(147=3×7×7)는 숫자 17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또한 1장 전체가 공교롭게도 51절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⁵⁹⁾ 여기서

상응관계에 있는 요 21:1과 관련지어 보면 요한은 숫자 17을 맞추려고 관사 호(ὁ)를 생략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관사가 생략된 ‘데오스(θεός)’는 관사가 붙은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한편, 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신약의 250개의 주격 술어 명사(predicative nominatives)에 관한 한 연구에서 동사 뒤에 올 때는 90퍼센트가 관사가 붙지만, 여기서처럼 동사 앞에 올 때는 87퍼센트에 달하는 경우에 관사가 붙지 않았다. Bruce M. Metzger, “On the Translation of John i.1”, Exp Tim 63(1951-1952), 125.

56)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요한복음주석1(해석편)』, 238-245을 참조하라.

57) 요 21:1 (17단어, *μετὰ ταυτα ἐφάνέρωσεν ἑαυτὸν πάλιν ὁ ἰησοῦς τοις μαθηταις ἐπί της θαλάσσης της τιβεριάδος ἐφάνέρωσεν δὲ οὕτως*).

58) 말씀(1,2절)/ 하나님(1c절,18절)/ 생명(4절)/ 빛(4,5,7,8,9절)/ 말씀이 육신이 되다(14a절)/ 아들(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14b절, 18, 34, 49)/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15,30절)/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 17, [20],41절)/ 그 선지자(21절)/ 주(23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29,36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33절)/ 랍비(선생, 38,49절)/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자(45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45절)/ 이스라엘의 임금(49절)/ 인자(51절). Frederick D. Bruner,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2), 124.

59) 장과 절의 구분은 후대의 편집적 작업에 의한 것이지만, 자의적으로 장과 절을 구분하기보다

숫자 51은 숫자 17을 세 번 더한 합수(17+17+17)로, 이는 이미 언급한 세 족장(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합수(17+17+17=51)와 같다. 창세기에 서 요셉이 세 족장의 결론적 성격을 갖는 인물인 것처럼, 예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성취적 인물로 오신 분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숫자 17의 3배수인 숫자 51(17×3)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17)와 부활(3)의 곱수로서 51의 마방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숫자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서 숫자(횃수) 17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휘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표적’ 어휘이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⁶⁰⁾이라고 할 정도로 표적 어휘는 중요하다. 요한은 표적 어휘를 17회⁶¹⁾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요 20:30-31),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주임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는 큰 물고기를 나타내는 헬라어 ‘익투스(ΙΧΘΥΣ)’⁶²⁾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갈릴리’ 어휘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예루살렘 중심적 복음서’라고 칭하였다. 이는 예수의 활동무대가 거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⁶³⁾ 그런데 주목할 점은 ‘갈릴리’ 어휘(17회)⁶⁴⁾가 ‘예루살렘’ 어휘(13회)⁶⁵⁾보다 더 많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요한복음은 구조상

는 본문(저자)의 문법(의도) 및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어 이룩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60) 다드는 요한복음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 즉 ‘표적의 책(The Book of Signs, 2:1-12:50)’과 ‘수난의 책(The Book of Passion, 13:1-20:31)’으로 나눌 만큼 ‘표적’을 중요시하였다.

Charles H. Dodd,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297, 390.

61) ‘표적’(2:11,18,23; 3:2; 4:48,54; 6:2,14,26,30; 7:31; 9:16; 10:41; 11:47; 12:18,37; 20:30).

62) 21장 11절에서 사용된 큰 물고기 ‘익투스(ΙΧΘΥΣ), Ἰησοῦς χριστὸς Θεοῦ Υἱὸς Σωτὴρ’ 어휘는 ‘작은 생선’을 일컫는 ‘옵사리온(ὀψάριον)’(요 6:9,11; 21:9,13)과는 달리 신앙고백이 담긴 어휘이다.

63) 갈릴리 기사(2:1-12; 4:43-54; 6:1-7:9; 21:1-25)는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마리아 기사(4:1-42)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예루살렘 기사이다.

64) ‘갈릴리’(1:43; 2:4,11; 4:3,43,45,46,47,54; 6:1; 7:1,9,41,52[2회]; 12:21; 21:2).

전체가 ‘다섯 차례의 하강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⁶⁶⁾ 이 같은 5중하강 구조는 요한복음이 표면적인 관찰과는 달리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임을 암시한다.⁶⁷⁾ 이는 요한(예수)의 고향인 갈릴리의 중요성⁶⁸⁾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여덟 번째 표적(큰 물고기 153표적)이 갈릴리 바다(21장)에서 행해졌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셋째, ‘죄’ 어휘이다. 신약 전체에 173회⁶⁹⁾ 나타나는 ‘죄(ἁμαρτία)’ 어휘를 요한이 17회⁷⁰⁾ 사용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죄’ 어휘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고 하였다. 요한은 지금 ‘죄’ 어휘를 17회 사용하여 ‘만민(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십자가 사건은 만민의 죄를 예수께서 지셨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죄 어휘의 중요성은 이에 근거한다.

넷째,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 어휘가 19회 나타난다. 그 중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두 구절(1:41; 4:25)을 제외하면 결국 ‘그리스도’ 어휘는 17회⁷¹⁾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20:31)에도 나와 있듯이,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요한복음을 썼다. 곧 예수는 ‘만민의 구주(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숫자 17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65) ‘예루살렘’(1:19; 2:13,23; 4:20,21,45; 5:1,2; 7:25; 10:22; 11:18,55; 12:12).

66) ‘하늘에서 땅으로의 하강구조(1:1-18)와 더불어 네 차례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의 하강구조(1:19-2:12/ 2:13-4:54/ 5:1-7:9/ 7:10-20:31/ 21:1-26)가 그것이다.

67)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요한복음주석1(해석판)』, 246-250을 참조하라.

68) 요한은 두 시간 용어(호라와 카이로스) 중 갈릴리에서만 유독 ‘카이로스’ 용어를 3회(7:6[2회],8)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갈릴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69) 마 7회, 막 6회, 눅 11회, 행 8회, 롬 48회, 히 25회, 요일 17회, 계 3회 등.

70) ‘죄’(1:29; 5:14; 8:7,11,21,24[2회],34[2회]; 9:2,3,34,41[2회]; 15:24; 19:11; 20:23).

71) ‘그리스도’(19회, 1:17,20,25,41; 3:28; 4:25,29; 7:26,27,31,41[2회],42; 9:22; 10:24; 11:27; 12:34; 17:3; 20:31). 그런데 요한은 히브리적 어휘인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 두 곳(1:41; 4:25)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헬라적 어휘인 ‘그리스도’라는 해설을 붙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괄호로 묶으면 결국 ‘그리스도’ 어휘는 17회가 된다.

다섯째, 요한복음 17장에는 ‘세상(κόσμος)’ 어휘가 17회⁷²⁾ 나타난다. 묵시문학은 사탄(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자들이 세상을 이김으로 배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주제(핵심 내용)이다. 이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33절(“...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이다. 이 구절에 이어지는 17장에서 ‘세상’ 어휘를 17회(‘다 이루었다’는 성취의 의미) 사용하고 있다. 예수는 세상을 온전히 이긴 자이기에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주후 30년경에 사신 예수는 세상을 온전히 이겼다.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난 주후 90년경은 예수 당시처럼 묵시문학적 박해상황에 놓여 있다. 예수를 본받아 이제 제자들이 세상을 이겨야 할 차례다.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요한복음에서 공히 78회 나타나는 ‘세상’ 어휘와 ‘제자(μαθηται)’ 어휘다. 숫자 78이 그 증거가 되는 까닭은 숫자 78은 숫자 17과 관련된 $(10 \times 7) + 8$ 이다. 여기서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 십자가(17)와 부활(3)의 곱수인 51의 미방진과 제자의 길

외람되지만 지금까지 숫자 153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묵시문학적 박해상황 아래에서 요한의 숫자 사용, 즉 게마트리아에 대한 이해의 결여와 이 숫자가 나타나는 요한복음 21장과 1장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해의 결여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⁷³⁾ 여기서 1장과

72) ‘세상’(17:4,5,6,9,11[2회],14[3회],15,16[2회],18[2회],21,24,25).

73) 153표적을 담고 있는 21:1-14과 상응관계에 있는 로고스찬가(1:1-18)의 음절이 496개(이 숫자는 31의 삼각수, 즉 1에서 31까지의 모든 수의 합)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독생자(1:14,18)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모노게네스(monogenh", $40+70+50+70+3+5+50+8+200$)의 수치이다. Richard Bauckham, “The Fourth Gospel as the Testimony of the Beloved Disciple”, in *The Gospel of John and Christian Theology*, R. Bauckham & C. Mosser(ed.), (Grand Rapids: Eerdmans, 2008), 127.

21장이 교차대구 구조로 서로 상응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목적은 제자도 때문이며, 제자도는 곧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차대구 구조로 서로 상응하는 서론 1장(prologue)과 결론 21장(epilogue)은 각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의 전반부(1-18절)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성육신)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19-51절)는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21장의 전반부(1-14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와 153표적을 행하심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15-25절)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제자 베드로에게 목회사명을 위임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우선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문구는 1장(42절)과 21장(15-17절)에만 등장한다. 따라서 이 문구는 공히 17개의 헬라이어 단어로 되어 있는 1장 1절과 21장 1절과 더불어 1장과 21장이 상응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구가 중요한 것은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심(소명)으로 장차 게바(베드로, 반석이라는 뜻), 즉 초대교회 초석을 놓을 반석 같은 제자가 될 것을 예시하고, 21장에서는 예수께서 세 차례나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심(재소명)으로 제자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153표적을 담고 있는 21장의 전반부(1-14절)⁷⁴⁾는 후반부(15-25절)의 베드로의 목회사명 위임을 위한 배경을 제공한다. 즉 153표적은 주후 90년경 묵시문학적 박해상황에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즉 제자도를 위한 배경을 제공한다. 제자도란 스승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할 때 1장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따라 나선 것처럼(1:37,40),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특히 베드로)을 불러 자신을 따르도록 명령하고 있다(21:18-19,20-22).

74) 기적적인 어획을 보도하는 요 21:1-14과 눅 5:1-11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Gerald L. Borchert, “Excursus 31: John 21:1-14 and Luke 5:1-11: A Form and Redactional Note,” *John 12-21*, Vol.25B, 331-332을 참조하라.

목양에 대한 세 차례의 예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21:15-18) 이후 이어지는 두 구절(18-19절)은 이미 30년 전 로마 황제인 네로 박해 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순교 이후 30년이 지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요한공동체(요한의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박해에 굴복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배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계 19:16)로 예배하고자 베드로처럼 순교의 길을 갈 것인가? 숫자 153표적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당시 유대교와 로마제국의 묵시문학적 박해상황을 전제로 한 숫자라는 것, 둘째, 당시 요한공동체 멤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상징적 숫자라는 것, 셋째, 본문과 관련된 숫자라는 것(1절의 17단어, 3일만의 부활, 세 번째 나타남 등), 넷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신앙고백적 성격을 담은 상징적 숫자라는 것, 다섯째, 기독교 선교의 성공적 확장 그와 따른 제자도와 관련된 숫자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 위의 언급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숫자 153은 묵시문학적 박해상황에서 비밀코드로 사용된 숫자로서, 인수 분해할 경우 숫자 17(또는 51)과 관련되어 있다($153 = [17 \times 3] \times 3$). 주목할 점은 상응관계에 있는 1장과 21장의 첫 절이 공히 17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표적(sign) 어휘가 17회 나타난다. 이는 153표적을 푸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153표적(sign)은 숫자 17로 풀어가야 한다는 사인(sign)을 제공한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는(21:14)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또한 숫자 3과 관련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의 숫자 3과 관련된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 153이 여러 측면에서 숫자 17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숫자의 삼배수인 51(17×3)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숫자 17을 세 번 더하면 $51(17+17+17)$ 이 된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곱수가 $51(17+17+17)$ 이며, 21장과 상응관계인 1장이 51절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숫자 51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⁷⁵⁾의 곱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은 전체를 ‘십자가-부활-십자가’ 구조⁷⁶⁾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구조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셨듯이, 제자들은 부활 체험을 한 후에 주님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갈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십자가의 숫자가 17이고, 부활의 숫자가 3이기에, 이 둘의 곱수는 $51(17 \times 3)$ 이다. 여기서 숫자 51이 중요한 까닭은 ‘숫자 17의 삼배수($17+17+17$)’인 51의 마방진(魔方陣)⁷⁷⁾으로 그려 지기 때문이다.

마방진이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같은 수치로 된 정방형의 도형을 말한다. 따라서 가로로 숫자 17을 세 번 더하면 $51(17+17+17)$ 이 되고, 세로와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51이 된다. 그리고 가로로 51을 세 번 더하면 $153(51+51+51)$ 이 된다. 이는 세로와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153이 된다. 즉 숫자 153은 숫자 17이 가로와 세로로 각각 세 번씩 곱한 수($17 \times 3 \times 3$)이다. 이것은 마방진 내에서 정확히 ‘십자가’ 형상을 띤다. 에스겔이 본 ‘바퀴 안의 바퀴’(겔 1:16) 형상처럼, 숫자 153은 ‘십자가 안의 십자가’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숫자 153은 숫자 17로 된 십자가가 9개가 있는 마방진 속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 형상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75) 사도 바울은 복음의 두 기둥인 십자가(고전 1:18-2:9; 갈 6:14)와 부활(행 17:18; 고전 15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의 구조를 통해 복음의 두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요한복음주석1(해석편)』, 251-262을 참조하라.

76) 요한복음은 십자가(10장)-부활(11장)-십자가(12장), 십자가(18-19장)-부활(20:1-21:14)-십자가(21:15-25) 구조로 되어 있다. Ibid., 372-374을 참조하라.

77) 마방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an Brown, *The Lost Symbol* (Eric Yang Agency, 2009), 『로스트심벌(2)』, 안종설 역 (서울: 문학수첩, 2003), 209-214을 참조하라.

같다.

17	17	17
17	17	17
17	17	17

그림 1. 숫자 153=(17×3)×3=십자가(魔方陣)

이 그림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약속(구원의 성취)’을 다 이루었듯이(요 19:30), 베드로 또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1장 42절의 말씀(“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깨바[‘반석’이라는 뜻]라 하리라”)을 온전히 성취할 것(베드로는 이미 순교함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암시한다. 초기 기독교 문헌들은 “팔을 벌리는 것”(21:18)을 십자가형에 적용시켰다.⁷⁸⁾ 초기 기독교 전승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으며(21:19), 마침내 예수님을 완전히 따랐다(13:37)고 보고한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묵시문학적 박해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요한공동체로 하여금 순교의 모델로 기능한다. 베드로의 소명은 궁극적으로는 순교이며, 그의 주님을 따르는 것(제자도)과 관련이 있다(21:21-22).⁷⁹⁾

그런데 153표적 사건 배후에는 예수의 부활 사건과 베드로의 부활체험 사건이 깔려 있다. 3대 원수(사탄, 세상,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예수의 부활 사건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영생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세상 나라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천국)가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자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 등극한 사건이다.⁸⁰⁾ 따라서 죽음이 두려워 십자가 앞에서

78) Craig S. Keener, 『요한복음 III』, 3178.

79) Ibid., 3169.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부활체험 사건은 그가 이전에 고백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마 16:16)임을 다시 상기시켜 준 사건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덟 번째 표적으로 ‘큰 물고기 153표적’을 행하셨다. 숫자 8⁸¹⁾은 새로운 시작(출발)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이제 황제의 도시인 디베라 바닷가(21:1)에서 “누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참 주님인가? 누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진정한 왕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를 향해 “주님이시라”(요 21:7)⁸²⁾라는 외침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즉 잠시 살다가 죽을 인생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가 진정한 왕(주)임이 분명해졌다. 이제 부활공동체인 요한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5. 나가는 말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숫자 153을 놓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그 많은 해석들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의 문학적 특징, 즉 묵시문학적 박해상황이라는 역사적(문화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이 숫자가 게마트리아(상징숫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나아가 숫자 153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문(21장)과 1장의 관계 및 요한복음 전체에서 숫자 17이 갖는 중요성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을 고찰해 보았다.

80) ‘부활의 복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왕의 복음』, 181-234을 참조하라.

81) 할례를 8일째 하는 것이 이에 근거한다(창 17:12; 눅 2:21; 빌 3:5).

82) 21장에는 주님(퀴리오스) 어휘가 8회(7[2회], 12, 15, 16, 17, 20, 21절) 나타난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가 새로운 주님(황제)임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고찰을 통해 우리는 숫자 153이 단순히 실제적인 물고기 숫자라기보다는 요한의 깊은 신학적 의도가 담긴 게마트리아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숫자 153과 관련하여 숫자 17이 중요한 데, 그 까닭은 숫자 17이 두 완전수인 10과 7 및 그 두 수의 합수(17)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숫자 10은 율법의 숫자로서, 이는 구약(유대인)의 대표적인 숫자로 기능하고, 숫자 7은 성령(은혜)의 숫자로서, 이는 구약(이방인)의 대표적 숫자로 기능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요 19:30)고 할 때,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십자가는 두 수(10과 7)의 합수인 17로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십자가와 더불어 기독교 복음의 또 한 축인 부활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에서 초대교회부터 숫자 3은 부활의 숫자로 간주하였다.

기독교 복음의 두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은 숫자 153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그 까닭은 십자가(17)과 부활(3)의 곱수가 51인데, 이는 숫자 153과 제자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부연설명하면 이렇다. 바울처럼 요한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였다. 요한복음은 전체 구조가 ‘십자가(10장/18-19장)-부활(11장/20:1-21:14)-십자가(12장/21:15-25)’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셨듯이, 제자들은 부활 체험을 한 후에 주님이신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갈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십자가의 숫자 17과 부활의 숫자 3의 곱수인 숫자 51(17×3)이 나타난다.

숫자 51은 마방진(魔方陣) 형상, 즉 가로와 세로와 대각선의 합이 똑같이 51로 된 마방진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51의 마방진이 중요한 것은 숫자 153이 51의 마방진으로 그려지고, 51의 마방진은 숫자 17(십자가)이 가로 세 번(3)과 세로 세 번(3)으로 된 형상, 곧 ‘바퀴 안에 바퀴’가 있듯이(겔 1:16) 17로 된 십자가 9개가 있는 전체 십자가 속에 ‘또 하나의 십자가(17×3×3)’가 있는 형상이다. 이 마방진 형상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님

이 지신 십자가를 제자들도 따라 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1장에 여덟 번째 표적인 숫자 153은 십자가(17)에 달리신 예수께서 사흘만에 부활(3)하여 제자들(특히 베드로)에게 세 번째(3) 나타나 제자의 길을 암호로 말하고 있는 게마트리아적 숫자임이 분명하다.

이를 증명하듯이 요한은 숫자 153 문제의 관건인 핵심 숫자 17을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보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하고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첫 절인 1장 1절과 상응하는 21장 1절이 헬라어 단어 17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비롯하여 1장의 17개의 기독교적 표현, 숫자 17과 관련된 야곱과 새 야곱이 되시는 예수, 그리고 중요 단어인 갈릴리, 표적, 죄, 그리스도를 17회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숫자 17과 관련된 큰 물고기 153표적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다. “갈릴리(17회) 바닷가에서 여덟 번째(새로운 시작을 의미)로 행한 큰 물고기 153마리 표적(17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의 죄(17회)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주 그리스도(17회)가 되심을 말해준다.”

따라서 요한은 ‘큰 물고기 153표적’을 통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숫자 153이라는 암호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를 순교로서 증언했던 것이다(요 21:18-19). 따라서 현재 요한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묵시문학적 박해와 순교 상황에서 ‘큰 물고기 153표적’보다 더 명쾌한 암호는 없다고 본다. 즉 ‘큰 물고기 153표적’은 게마트리아의 백미(白眉)이자 압권(壓卷)이다. 한편 ‘큰 물고기’를 나타내는 헬라어 익투스([ΙΧΘΥΣ],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Θεοῦ Υἱὸς Σωτήρ) 어휘 속에는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요 20:30-31), 즉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구원)을 주시는 구주되시는 분이라는 신앙고백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익투스 153표적’은 앞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요 11:16)⁸³고 한 도마의

83) 이 같은 도마의 발언은 요한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고백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예수의 길이 십자가의 길ियो, 또한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듯이(요 12:23-24), 목양의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 베드로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다(요 21:15-19). 그렇다면 묵시문학적 박해상황 아래 있는 요한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 또한 앞서 가신 주님과 베드로의 발자취를 따라 부활의 감격과 능력, 그 승리를 가슴에 안고 당당하게 걸어나는 십자가의 길(마 16:24)이다.

초대교회에서 암호문으로 사용된 물고기(익투스)⁸⁴⁾ 상징은 바로 이에 대한 좋은 증거이다. 다시 말하면 ‘큰 물고기 153표적’은 순교나 배교나라는 묵시문학적 박해상황에서 요한공동체(제자들)가 가야할 길(제자도)이 십자가의 길, 즉 순교로 주님께 충성할 것을 게마트리아(숫자상징코드)를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유대교의 두 상징이 다윗의 별과 메노라(등잔대)라면, 기독교의 두 상징은 십자가와 익투스(물고기)이다.⁸⁵⁾ ‘큰 물고기(익투스)’ 속에는 기독교 최고의 신앙고백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고, 숫자 153표적 속에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물고기 153표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제어>

게마트리아, 묵시문학적 상황, 창세기와 요한복음, 숫자 17과 51, 숫자 153

<Keywords>

Gematria, Apocalyptic persecuting situation, Genesis and John, Number 17 and 51, Number 153

* 접수일 2019년 1월 15일, 수정일 2019년 3월 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3월 30일

84) 더 자세한 설명은 예수의 생애를 ‘익투스’의 관점에서 다룬 Sinclair B. Ferguson and Derek W. H. Thomas, *ICHTHUS* (Murrayfield Road, 2015); 『익투스』, 구지원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을 참조하라.

85) 살롬(평화, 화해)의 상징인 ‘다윗의 별과 십자가’의 상응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호용, 『왕의 교제』 (서울: 쿰란출판사, 2017), 118-147을 참조하라.

참고문헌

- 김동수, 『요한신학 렌즈로 본 요한복음』, 서울: 솔로몬, 2006.
- 박수암,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박호용, 『성경개관2(신약편)』, 서울: 예사빠전, 2015.
- _____, 『요한복음주석1(해석편)』, 서울: 예사빠전, 2015.
- _____, 『요한복음주석2(주석편)』, 서울: 예사빠전, 2015.
- _____, 『왕의 교체』, 서울: 쿤란출판사, 2017.
- _____, 『왕의 복음』, 서울: 쿤란출판사, 2018.
- _____, 『창세기주석』, 서울: 예사빠전, 2015.
- 왕대일, 『목시문학연구: 구약성서 목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이영현, 『요한복음서』, 경북: 분도출판사, 1999.
- 이희영, 『탈무드 황금을 방법: 유대 5000년 불굴의 방패』, 서울: 동서문화사, 2001.
- 조철수, 『유대교와 예수』, 서울: 길, 2002.
- _____, 『예수평전』, 서울: 김영사, 2010.
- 최흥진, 『요한복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 Barrett, Charles K.,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London: SPCK, 1960.
- Bauckham, Richard, “The Fourth Gospel as the Testimony of the Beloved Disciple,” in *The Gospel of John and Christian Theology*, R. Bauckham & C. Mosser(ed.), Grand Rapids: Eerdmans, 2008, 120-139.
- _____, “The 153 Fish and the Unity of the Four Gospel,” 283-284.
- Beutler, Johannes, *A Commentary o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13.
- Borchert, Gerald L., “Excursus 6: Numbers”, *John 1-11*, Vol.25A, Nashville: PublishingGroup, 1996, 254-256.
- _____, “Excursus 31: John 21:1-14 and Luke 5:1-11: A Form and Redactional Note,” *John 12-21*, Vol.25B, Nashville: Publishing

- Group, 2002, 331-332.
- Brown, Dan, *The Lost Symbol*, Eric Yang Agency, 2009; 『로스트심벌 2』, 안중설 역, 서울: 문학수첩, 2003.
- Bruner, Frederick D.,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2.
- Bultmann, Rudolf, *The Gospel of John*, Oregon: Wipf & Stock, 1971.
- Ferguson, Sinclair B., and Thomas, Derek W. H., *ICHTHUS*, Murrayfield Road, 2015; 『익투스』, 구지원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1)*,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 _____,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2)*,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 Keener, Craig S.,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III*,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2003; 『요한복음 III』, 이옥용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 Klink III, Edward W., *Joh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Zondervan, 2016.
- Kruse, Colin G., *Joh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 4, Nottingham: Inter Varsity Press, 2003.
- Marucci, Corrado, “Il significato del numero 153 in Gv 21,11,” *RivB52*(2004), 403-440.
- Metzger, Bruce M., “On the Translation of John i.1”, *ExpTim* 63 (1951-1952), 125-126.
- Moloney, Francis L., *The Gospel of John*, Nashville: Liturgical Press, 1998.
- Sarna, Nahum M.,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0.
- Waltke, Bruce K., *Genesis: A Commentary*, Zondervan, 2001;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Wenham, George J., *Genesis 16-50(2)*, WBC, Dallas: Word, 1995.

<초록>

숫자 17과 큰 물고기 153표적(요 21:11)의 의미

박호용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숫자 17과 큰 물고기 153표적(요 21:11)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유대인인 요한 또한 요한복음서에서 숫자 상징을 통한 게마트리아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숫자 17은 숫자 10과 7의 합이다. 두 개의 완전수인 숫자 10과 7은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특히 첫 창조기사(창 1:1-2:3)와 족장들(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수명에서 그러하다.

지금까지 숫자 153(요 21:11)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었다. 특히 조철수 교수는 물고기 153에 숫자 17이 감추어져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숫자 153이 왜 숫자 17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요한복음(특히 1장) 내에서 이끌어내지 못했다. 게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숫자 153이 요한복음 전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해석해 내지 못했다.

따라서 21장에 나타난 숫자 153을 적절히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숫자 17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1장과 21장이 서로 상응하는 교차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1장 1절과 21장 1절이 17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제자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21장에 있는 숫자 153($17 \times 3 \times 3$)은 숫자 17과 그것의 삼배수인 51(17×3)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제자도와 관련된 1장에 숨겨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숫자 17과 그 삼배수인 51(17×3)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17)와 부활(3)’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숫자 51은 17로 된 마방진(17×3×3)을 형성하는데, 이는 ‘십자가 속에 십자가’ 형상을 띤다. 이를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제자들 또한 지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숫자 153은 암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하고자 한다. “갈릴리 바다에서 여덟 번째 표적으로 수행된 큰 물고기 153표적은 만민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한다. 따라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르라.” 묵시문학적 박해와 순교 상황에서 이보다 더 분명한 상징코드는 없다.

그러므로 숫자 153에 나타난 게마트리아(숫자상징코드)를 통해, 요한은 자신의 저작의 목적(요 20:31), 즉 예수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계 17:14; 19:16)인 메시아(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생존이 위협당하는 묵시문학적 박해상황에서 요한공동체와 제자들이 가야할 길(제자도)은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Number 17 and the Meaning of the Large Fish 153 Sign (John 21:11)

Prof. Ho-Yong Park
(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Number 17 and the Meaning of the Large Fish 153 Sign(John 21:11).’ The Jews are very peculiar to the interest in numbers. The Jews bestowed peculiar meanings unto respective numbers. John, a Jew, also utilizes fully ‘gematria’ through numeric symbols in the Gospel of John.

Number 17 is the sum of number 10 and 7. The perfect number 7 and number 10 are shown up often in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in the first account of creation(Genesis 1:1-2:3) and the lifespans of three patriarchs(Abraham, Isaac and Jacob).

Up to now there has been many opinions about ‘number 153.’ Prof. Chul-Soo, Cho argues that number 17 is hidden in the fish 153. However, the problem is that upto now in the Gospel of John, especially chapter 1, the reason (proof) has not been drawn why number 153 is related to number 17. Further it has not been properly interpreted what kind of meaning has the number 153, manifested in chapter 21, in relation to the entirety of the Gospel of John.

Thus to interpret properly the number 153 in chapter 21, first of all, the clue is to be revealed, which is related to the number 17 in the Gospel of John. For this, therefore, it has to be deducted that chapter 1 and 21 forms the chiasmic structure corresponding each other and that chapter 1 belongs to introduction, chapter 21 to conclusion. The reason why this

is important is that the number 153 ($17 \times 3 \times 3$) in chapter 21 is deeply related to number 17 (Cross) and number 3 (Resurrection), and its multiple 51 (17×3), and that the key for solving this matter is hidden in chapter 1 in relation to the discipleship.

However, Number 17 and its multiple 51 (17×3), manifested in chapter 1, are deeply related to the Book of Genesis. Thus before the study of the Gospel of John, the study of Genesis is to be preceded. That is to say, after the study on number 17 manifested in Genesis and in the Gospel of John, the secret of number 153 written in chapter 21 is to be solved.

Through this study, it is spoken as follow: “The sign of large fish 153, which was performed by the Sea of Galilee as the eighth sign, refers to Christ Jesus who took up the Cross for the sin of all nations. Therefore, Simon, son of John! follow me, if you love me, with the Cross which I took up.” There is no other obvious code than this under the situation of apocalyptic literary persecution and martyrdom.

Therefore, through the number 153, i.e. numeric symbolic code (gematria), John clearly presents, as in the statement of the purpose of his writing (20:31), not only that Jesus is Messiah (Christ) who i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Rev 17:14; 19:16) but that under the apocalyptic persecuting situation in which one’s survival is threatened, the way (discipleship) the community of John and disciples should take is the way of the Cross.